

뒤늦게 유해 보낸 하마스·구호 끊은 이스라엘...휴전 ‘베그덕’

이, 구호트럭 절반으로 줄이고 연료 반입 제한...남부 국경 개방 연기
하마스, 인질 시신 4구 추가 송환...약속한 28구 중 20구는 아직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단계 휴전 합의에서 약속한 이스라엘 인질 시신 송환이 늦어지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품과 연료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은 남부 국경 검문소의 개방도 연기하는 등 가자 휴전이 지난 10일 발효 이후 첫 시험대에 올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5일부터 가자로 들어가는 구호트럭의 수를 당초 합의된 수준의 절반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가자로 들어가는 연료도 차단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업무조직 민관협조관(COGAT)은 또 인도주의적 기반시설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연료나 가스도 가자에 반입할 수 없다고 유엔에 통보했다.

COGAT는 “하마스가 가자에 억류자들의 시신 송환에 관한 합의를 위반했다”며 “이에 따라 인도주의적 합의와 관련해 여러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COGAT는 지난 10일 휴전 기간 매일 약 600대의 구호 트럭이 가자에 반입될 것이라고 밝

힌바 있다.

그리고 12일엔 트럭 80대가 가자로 들어갔고 유엔에 보고했다. 13일에 얼마나 반입됐지는 확실치 않다고 유엔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15일에 가자 남단 라파 검문소를 개방하려던 계획도 연기하기로 했다. 라파 검문소는 이집트 쪽에서 가자 남부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육상 통로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자국 인질들의 시신을 인도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며, 검문소 폐쇄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유니세프 측은 “모든 국경 검문소가 개방돼야 한다”며 “라파 봉쇄가 길어질수록 가자 주민, 특히 남부 피란민들의 고통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초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휴전 1단계 합의가 발효된 지난 10일 정오부터 72시간 안에 가자에 억류중인 생존 인질 20명을 석방하고 시신 28구(가자 전쟁 이전 납치된 1명의 유해 포함)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생존 인질 20명은 모두 석방했지만 시신은 4구밖에 인도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가자지구에서 인도되는 시신 지난 2023년 10월 치명적인 공격 이후 가자지구에서 억류돼 있던 인질들의 시신을 적십자 차량이 운반하고 있다./REUTERS=연합뉴스

다만 가자로 가는 구호품을 제한한다는 이스라엘의 발표 이후 하마스는 14일 오후 시신 4구의 시신을 추가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인계했으며, 곧 이스라엘에 전달될 예정이다.

양측이 인질 송환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가자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이날 언론 브리

핑에서 여전히 소수의 트럭만 가자에 반입되면서 많은 주민이 트럭에 몰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는 인도주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국제구호단체들도 가자 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옥스팜, 노르웨이난민위원회(NRC), 케어

(CARE) 등 구호단체 50여곳이 가자에 물자를 반입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도 지난 10일 구호품을 배포한 이후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메타 “인스타그램 청소년 보호 강화”

메타가 인스타그램에서 한층 더 강화된 청소년 보호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메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계정을 영화 심의 기준인 ‘PG-13’ 등급과 비슷하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소년 이용자들이 PG-13 등급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콘텐츠를 보게 된다는 뜻으로, 욕설이 심한 게시물이나 대마초 관련 용품이 등장하는 게시물처럼 잠재적으로 유해한 행동을 조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숨기거나 추천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메타는 또 기준에 차단해온 자살이나 자해, 섭식장애 등 민감한 주제 관련 검색어와 함께 ‘알코올’이나 폭력 등과 연관된 더 광범위한 성인용 소재에 대해 콘텐츠 검색 결과를 청소년이 볼 수 없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확인된 계정을 청소년 이용자가 팔로우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의 영상물 심의 등급에서 ‘PG-13’은 13세 미만 청소년의 시청이 권장되지 않는 콘텐츠에 매겨진다.

/연합뉴스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화재 최소 16명 사망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있는 의류공장에서 불이나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15일 현지 일간 데일리스타 등에 따르면 불은 전날 오전 11시40분께 다카의 미르푸르 구역에 있는 4층짜리 공장 3층에서 나서 인접한 화학물 질 창고로 급속히 번졌다.

의류공장 불은 약 3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창고의 화학물질에 불은 쉽게 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2층과 3층에서 시신 16구를 수습했고 일부 부상자도 발생했다”면서 수습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재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美, 캄보디아 온라인사기기업 코인 21조원 압류

‘초국가 조직’ 프린스그룹 北해킹자금

세탁한 후이원그룹 제재...英과 공조

미국과 영국 정부는 캄보디아 등지를 근거지로 삼아 활동하며 전 세계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고 인신매매한 노동자들을 고문하는 불법 스캠(사기)센터를 운영해온 조직을 제재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젊은이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자신들의 범죄에 동원하고, 고문·살해까지 한 일당의 범죄와 피해 실태가 최근 한국 사회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도 유사한 조직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제재 대상은 ‘프린스 그룹’(Prince Group)과 그 회장인 천즈다. 영국 정부 성명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등지에서 광범위한 사업을 하는 업체다. 천즈와 이 업체는 카지노와 스캠 센터로 사용되는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한다.

프린스 그룹과 연계된 래저·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진베이 그룹’, 진베이·프린스 그룹과 연계된 암호화폐 플랫폼 ‘바이엑스 거래소’도 제재 대상이다.

영국 정부는 ‘골든 포천 리조트 월드’(Golden Fortune Resorts World)도 제재 대상으로 올리면서 프린스 그룹 자회사가 건설하고 ‘기술 단지’로 위장한 포농펜 외곽의 대규모 스캠 단지의 배후 회사라고 설명했다.

천즈를 비롯한 이들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사업체를 두고 런던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 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런던의 1천200만 파운드(약 230억원)짜리 저택과 1억 파운드(1천900억원)짜리 사무용 건물, 아파트 17개가 포함된다.

제재로 이들 사업체와 부동산은 즉각 동결되며 천즈 등은 영국 금융체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서 천즈 회장을 비롯한 이

그룹과 관련해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미 법무부는 천즈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천즈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약 150억달러(약 21조원) 상당의 비트코인 12만7천271개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압류 중인데, 이는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압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에 대한 제재와 함께 캄보디아 소재 금융서비스 대기업 후이원(Huione) 그룹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차단하는 조치도 확정했다.

후이원 그룹은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사기·탈취를 통해 확보한 가상화폐 자금을 수년간 세탁해왔으며 북한이 탈취한 가상화폐 자금을 세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